

조선초기 단군 인식과 『삼국유사』 간행*

도 현 철**

〈차 례〉

- | | |
|-------------------------|----------------------------|
| 1. 머리말 | 1) 단군의 역사화와 한국 상고사 인식 확대 |
| 2. 단군 인식과 역사 인식의 확대 | 2) 『삼국유사』 간행과 한국 통사 체계의 확립 |
| 1) 국가 의식과 단군 인식 | |
| 2) 원과의 교류와 역사 인식의 확대 | |
| 3. 한국 상고사 인식과 『삼국유사』 간행 | 4. 맺음말 |

〈국문요약〉

최근 조선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룬본 『삼국유사』가 소개되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불교사 입장에서 정리된 『삼국유사』를 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표였다.

고려후기에 몽골의 침입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았고, 『삼국유사』와 『제왕운

기』를 통하여 국가의 시조로 단군을 인식하게 되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고조선을 상징하고 단군을 우리 역사의 시조로 설정하였다. 『삼국유사』는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하여 삼한과 삼국,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 계승을 제시했다. 당초 단군은 평양과 황해도 구월산 지역의 민간 신앙적 수호신으로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과 박물관이 주체한 '파룬본' 『삼국유사』 기증 기념 학술회의 “파룬본 『삼국유사』의 가치와 의의”(2013.4.26.)에서 발표된 글이다. 사회와 논평을 맡아준 박종기(국민대), 김영미(이화여대), 조경철(연세대) 선생은 필자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었다.

** 연세대 사학과 교수, 한국사학.

이해하다가, 국가시조, 역사공동체의 시조로 인식하게 되었다.

고려후기에 단군을 역사의 시원으로 파악하기는 하지만,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내용을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교의 합리사관으로 인하여 유학자들은 단군을 사실로 인정하는데 주저하였다.

유교 국가인 조선은 나라의 시조인 단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군부터 조선에 이르는 역사를 서술하고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유교사관에 의한 연구를 통해 단군을 역사상의 인물로 재발견하였고, 『동국사략』과 『삼국사절요』를 완성하였다.

핵심어: 삼국유사, 단군, 고조선, 권근, 경주, 조선왕조

이 과정에서 『삼국유사』의 간행이 필요했다. 역사서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기본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삼국유사』는 태조 3년 무렵에 『삼국사기』와 함께 경주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말하자면, 조선왕조는 단군 인식과 한국상고사 인식의 확대로 고조선으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를 계통적으로 이해하는 통사체계를 구상하였고 이 과정에서 『삼국유사』를 간행하였던 것이다.

1. 머리말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승려 일연(1206~1289)이 지은 것으로 오천 년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국학의 고전이다. 『삼국유사』는 성리학을 국시로 했던 조선시대에 간행된 불교역사서로서의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조선초기 판본으로 추정되는 파본 『삼국유사』의 소개는 조선왕조에서 『삼국유사』를 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다. 조선은 유학을 정통·정학으로

유학 이외의 종교·사상을 異端으로 배척하는 성리학을 국정교학으로 삼았음에도 승려의 저술이며 설화와 신화를 많이 담고 있는 불교적 역사서인 『삼국유사』를 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3세기 무렵 찬술된 『제왕운기』와 『삼국유사』를 통하여 국가의 시조로 인식된 단군을 조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단군의 시대에서 조선초기까지 한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구할 필요가 있다. 괴력난신이나 비합리적인 서술을 경계하고 있는 유학의 역사관에 비추어 볼 때 『삼국유사』는 분명 배치되는 점이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조선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단군 인식과 사대외교를 지향하는 조선의 외교 정책 사이에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¹⁾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선초기의 단군²⁾에 대한 인식과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 곧 한국상고사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삼국유사』가 조선초기에 유통되는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삼국유사』에 대한 연구는 1927년 최남선이 해제(『啓明』 18)를 붙인 이래 개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이 있다(李基白, 『韓國古典研究 - 『三國遺事』와 『高麗史』兵志』, 일조각, 2004;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일조각, 1991; 金相鉉, 『三國遺事의 書誌的 考察』, 『譯註 三國遺事』 V, 이회문화사, 200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삼국유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 1987; 일연학연구원,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2007).
- 2) 최근 연구에서는 한국사에서 단군을 4시기로 구분하여 인식한 것으로 보았다. ① 고조선 당시: 고조선 시조신으로서의 단군 ② 고조선 멸망부터 고려 중엽: 지역신으로서의 단군 ③ 고려 중엽부터 한말: 국가시조로서의 단군 ④ 한말부터 현재: 민족의 시조로서의 단군 인식(서영대, 『단군인식의 변천』, 『고조선사연구 100년』, 학연문화사, 2010).

2. 단군 인식과 역사 인식의 확대

1) 국가 의식과 단군 인식

고려후기 몽골의 침입과 간섭은 국가 자체와 함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외재적 계기로 작용한다.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아 우리 역사의 근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식, 공동체 의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신라·고구려·백제 삼국 가운데 어느 왕조를 이었는가하는 역사 계승의 문제나 자기가 살고 있는 왕조 또는 당대의 국왕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시조인 단군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연과 교류한³⁾ 이승휴(1224~1300)의 『제왕운기』에 잘 나타나 있다. 이승휴는 우리 민족체는 역사공간상으로 중국 중심의 천하와 구별되고 단군이 요 임금과 같은 시기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다. 원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에 고려가 적응해야 하는 현실적 고민 속에서 문명의 기준을 중화에서 구하여 소중화 의식을 견지하였으면서도 우리의 역사가 단군으로부터 시작하여 삼한·삼국·발해·신라·고려에 이르는 역사 계승을 천명하고 전통적인 문화 제도 곧 國俗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⁴⁾

널리 알려져 있듯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고조선(왕검조선)을 상정하고 단군을 우리나라 역사의 시조로 설정하였다. 『삼국유사』⁵⁾는

3) 『動安居士文集』 行錄 권2, 次韻李柳兩令公唱和詩并序; 金成煥,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景仁文化社, 2002, 271~272쪽.

4) 채웅석, 『帝王韻紀』로 본 이승휴의 국가의식과 유교관료정치론, 『국학연구』 21, 2012.

5) 『삼국유사』는 王曆을 비롯하여 9항으로 구성되었는데, 王曆 紀異가 전체 분량의 절반 차지한다. 王曆은 신라시조 혁거세부터 고려태조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삼국과 駕洛 그리고 후삼국의 王曆을 중국과 함께 도표화하여 시대적 준거가 되게 하였고 紀異는

우리 역사가 고조선·위만조선에서부터 시작하여 마한·진한·변한의 삼한·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그리고 고려로 이어지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⁶⁾ 아울러 古記를 인용하여 요 즉위 50년인 庚寅年에 도읍하고 조선이라고 칭하였고 중국의 요와 같은 시기라고 하면서, 세주에 요 즉위 원년은 戊辰年이므로 50년은 庚寅年이 아니고 丁巳年이라고 하였다.⁷⁾ 『제왕운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이 세운 전조선·후조선·위만·사군·삼한·신라·고구려·백제·후고려·후백제·발해·고려의 계열로 설정했다. 그리고 단군이 요 임금과 같은 戊辰年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다.⁸⁾

또한 두 사서는 단군 이후의 역사도 서술하였는데, 각 사서가 이용한 자료에 따라 역사 서술도 달랐다. 『삼국유사』는 위서·고기·단군기를, 『제왕운기』는 단군본기를 근거 자료로 활용했다. 그래서 『제왕운기』는 단군조선·위만조선·기자조선의 삼조선에 이어 사군을 거쳐 삼한·신라·고구려·남북옥저·동북부여·예맥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라⁹⁾고 하였다.

고조선 부터 후백제까지 고대사의 神異를 바탕으로 59항목을 다루었다. 興法 이하는 불교에 대한 기사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李基白, 앞의 책, 2004).

6) 史書의 상고사 체계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사략』	『동국통감』	『동사보유』	『동사강목』
古朝鮮 魏滿朝鮮 馬韓 二府 七十八國 樂浪國 北帶方 南帶方 靺鞨(渤海)	地理紀 前朝鮮紀 後朝鮮紀 衛萬朝鮮紀 漢四郡及列國紀 新羅紀	檀君朝鮮 箕子朝鮮 衛滿朝鮮 四郡二府 三韓 三國	檀君朝鮮 箕子朝鮮 衛滿朝鮮 四郡二府 三韓 三國	檀君朝鮮 箕子朝鮮 衛滿朝鮮 四郡 二府 三韓 北夫餘 南夫餘	朝鮮 馬韓

7) 『三國遺事』 권1, 紀異2 古朝鮮 “魏書云, 乃往二千載有檀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古記云, …… 號曰檀君王儉, 以唐高即位五十年庚寅(唐高即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

8) 『帝王韻紀』 권하, 前朝鮮紀 “並與帝高興戊辰, 經虞歷夏居中宸, 於殷虎丁乙未阿斯達山爲神, 享國一千二十八 ……”

고조선·사군·삼한·삼국으로 이어지는 일원적인 체계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삼국유사』는 고조선과 고조선의 시조로서의 단군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했지만, 고조선·위만 조선 등 14개 古國들에 대한 나열적인 서술에 그쳐 『제왕운기』보다는 상고사 서술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감이 있다.¹⁰⁾

고려시기에 단군은 지역 수호신으로 존재해왔다. 평양에는 『삼국사기』에 보이는 仙人王儉¹¹⁾과 조연수묘지명의 平壤君子¹²⁾, 『고려사』의 平壤仙人(八聖堂) 등으로 나타나는 전승이 있다. 또한 황해도 구월산에는 桓因天王·檀雄天王·檀君天王을 모신 三聖堂이 있는데, 이는 이승휴가 언급한 祠堂이며, 하륜이 諸祠의 木像 철폐를 주장할 때 언급한 곳으로 祈雨處이면서 민간신앙과 결부된 단군 신앙으로 추정되었다. 즉 13세기 이전에는 단군을 평양의 사당에 모셔진 지역 시조신, 또는 황해도 구월산 지역의 삼성사 등에 모셔진 민간 신앙적 자연신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다가 몽골 침략 전후인 13세기 후반부터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왕검조선)’으로, 『제왕운기』에서는 ‘전조선기’로 단군의 전승을 고려 이전의 역사 시대로 정리함으로써, 단군을 국가시조·역사공동체의 시조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한국 역사의 시원과 그 이후의 역사를 계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였다.¹³⁾

9) 『帝王韻紀』 권하, 前朝鮮紀 “名檀君, 據朝鮮之域爲王, 故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濊與貊, 皆檀君之壽也.”

10)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단군 이해의 차이는 다음의 연구가 자세하다(崔柄憲, 「檀君 認識의 歷史的 變遷 - 고려시대 歷史的 傳承 文獻의 檢討」,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출판부, 1994; 金成煥, 앞의 책, 2002, 264~274쪽).

11) 『三國史記』 권17, 高句麗 本紀 東川王(21년 춘2월) “平壤者, 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 王之都王儉.”

12) 金龍善 編著, 『趙延壽墓誌銘』(1325년(충숙왕 12), 李叔琪), 『高麗墓誌銘集成』, 1993.

13) 姜萬吉, 「李朝時代의 檀君 崇拜」, 『李弘植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69; 崔柄憲, 위의 글, 139~156쪽; 박광용, 「단군 신앙의 어제와 오늘」, 『한국사시민강좌』 27, 2000.

단군을 역사의 시원으로 파악하는 것은 고려후기에 확산된다. 백문보는 공민왕에게 올린 개혁 상소에서 “단군으로부터 지금까지 3,600년이 되었다”고 하였다.¹⁴⁾ 이색은 “우리나라 역사는 唐堯의 戊辰年 朝鮮氏가 나라를 세운 이후로 시작되었는데 비록 대대로 중국과 교류하였지만, 중국이 신하로 대한 적은 없었다. 그 때문에 주 무왕이 은나라 太師 기자를 조선에 봉할 때도 신하로 삼지 않았다”¹⁵⁾고 하여 『제왕운기』의 기록에 따라 요 임금시대의 戊辰年에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색은 기자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상고하기 어렵다고 하였다.¹⁶⁾ 유교의 합리사관에 충실하고 역사서술의 객관성을 중시한 이색은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데는 주저하였던 것이다.

2) 원과의 교류와 역사 인식의 확대

고려후기에는 원과의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고 원의 간섭을 받는다. 원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배를 확대해 갔다. 고려는 몽골과 항쟁을 벌이다 왕정 복고를 단행하고, 중국을 천자국으로 하고 고려를 제후국으로 하는 사대 관계를 맺는다. 그 과정에서 고려 왕실은 원 황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원의 정치·문화·사회적

63~64쪽: 金成煥, 앞의 책, 2002, 155~185쪽.

- 14) 『高麗史』 권112, 列傳25 白文寶(하-451라-452가) “後上疏言事曰, …… 國家世守東社, 文物禮樂有古遺風, …… 吾東方, 自檀君, 至今已三千六百年, 乃爲周元之會, 宜遵堯舜六經之道, 不行功利禍福之說, 如是, 則上天純祐, 陰陽順時, 國祚延長.”
- 15) 『牧隱集』 文藁 권9, 送使符寶使還詩序(공민왕 18년 5월) “予惟朝鮮氏立國, 實唐堯之戊辰歲也, 雖世通國, 而中國未嘗臣之, 是以, 武王封殷太師而不之臣, ……”
- 16) 『牧隱集』 文藁 권8, 賀竹溪安氏三子登科詩序(우왕 4년 4월) “吾東方在虞夏時, 史不傳, 不可考, 周封殷太師箕子, 則其通中國也, 蓋可知已, 雖其封之, 又不臣之, 重其受禹範, 爲道之所在也.”

지배를 받게 되는 한편으로 성리학이 수용되고 역사인식도 확대된다.

고려는 원나라와 천자-제후라는 새로운 지배질서를 유지하고 왕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고려와 원 관계에 대한 새로운 역사인식이 필요했다. 그에 따라 형제맹약 이후 당시까지 양국 관계를 중심으로 한 약 1백여 년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서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當代史에 대한 역사 서술과 인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정가신은 『千秋金鏡錄』을 지었는데¹⁷⁾ 민지(1248~1326)가 충렬왕의 명으로 이를 증수하여 『世代編年節要』(권7)을 완성하였다.¹⁸⁾ 이 밖에 閔漬의 『編年綱目』, 元傳·許珙 등의 『古今錄』 등을 통하여 원과의 관계사를 정리하였다. 특히 이세현은 1216년에서 1220년까지 거란군과의 전투·몽골군과의 형제맹약·義州 叛民과 거란 殘黨 진압 과정 등에서 참여한 김취려의 군사 활동이 정리된 「김공행군기」와 고려 태조에서 충선왕까지의 역사를 다룬 「충헌왕세가」 등으로 자신의 직접 체험한 고려와 원 관계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역사서 편찬에는 원나라가 고려에게 역사서와 역사기록물을 요구한 것이 한몫을 했다. 충렬왕 4년(1278) 원 중서성에서는 고려의 역대 事跡 및 원나라의 귀부한 날짜, 사신의 명단, 國王의 親朝 年月 등을 기록하여 바치도록 요구하였다.¹⁹⁾ 또한 충렬왕 12년 원에 바치기 위해 直史館 吳良遇에게 국사 편찬을 명하였고²⁰⁾, 충렬왕 33년(1307)에는 충선왕의 요청에 따라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先代實

17)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2(10년 6월 丙子)(상-611-다) “監修國史元傳·修國史許珙·韓康等, 撰古今錄, 至十月而成.”

18) 『高麗史』 권107, 列傳20 閔漬(하-368-나).

19) 『高麗史』 권28, 世家28 忠烈王1(4년 7월 丁亥)(상-581-라) “中書省令具錄本國累朝事跡及臣服日月, 與帝登極已來使介名目, 國王親朝年月以呈, 因國史院報也.”

20) 『高麗史』 권30, 世家30 忠烈王3(12년 11월 丁丑)(상-615-라) “命直史館吳良遇等, 撰國史將以進于元也.”

錄 185책이 원나라에 보내졌다.²¹⁾ 이밖에 충렬왕 21년에는 임익과 김병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원의 『世祖事跡』²²⁾을, 충선왕 즉위년(1308)년에는 조련이 『世代編年節要』과 『金鏡錄』을 원나라²³⁾에 바쳤다.²⁴⁾ 원나라는 漢化정책을 추진하면서 화이론에 기초한 조공 책봉관계를 지향하고 이에 걸맞는 주변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하였다.²⁵⁾ 그리하여 원나라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고려에 대한 역사 문화적 관심을 가졌고, 고려 또한 제후국으로서의 위상과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두 나라 사이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²⁶⁾

이때 원으로부터 수용된 성리학은 理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역사 서술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理에 의한 세계관은 현실 사회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인간 역사의 윤리와 명분 의식을 강화하는 가운데 역사 서술 방법의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설명 방식의 다양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역사의 강조는 중국과 구별

21)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5(33년 11월 丙戌)(상-667라-668가) “以前王命, 遣直史館尹頊, 奉先代實錄一百八十五冊, 如元. 時人皆不可曰, 祖宗實錄不宜出之他國.”

22)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4(21년 3월 정사)(상-636-가) “命同修國史致仕任翊·史館脩撰官金旻 撰先帝事跡”; 『高麗史』 권95, 列傳8 任懿 任翊(하-134-다) “嘗奉教撰瑤源錄, 又撰元世祖事跡”;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就礪 金旻(하-270-가) “與同修國史任翊撰元世祖事跡.”

23) 충혜왕후 4년(1343)에 원나라는 고려에 송·요·금나라의 事蹟을 구하였다(『高麗史』 권36, 世家36 忠惠王(후4년 5월 壬午)(상-736-다) “元遣直省舍人實德來, 索宋遼金三國事蹟”).

24) 『高麗史』 권33, 世家33 忠宣王1(즉위년 12월 무오)(하-682-다) “遣評理趙璉, 如元賀正. 以王命 賚世代編年節要, 并金鏡錄, 以進.”

25) 원의 고려에 대한 역사서 요구는 양국 교섭을 위한 고려 역사 이해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원의 고려 지배를 위한 방편으로 쓰이기도 하였다(金相鉉, 『高麗後期の 歴史認識』, 『韓國史學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1985, 79~80쪽).

26) 박종기, 『원 간섭기 역사학의 새 경향 - 當代史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1, 2011.

되는 역사의 유구성과 문화의 독자성을 유지해온 고려에게 자국의 역사 이해의 폭을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유교를 보다 강화한 성리학은 요·순 시대를 이상사회로 파악하고 그 시대를 재현하는 정치사상을 견지하며, 요·순 이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를 구분하고 역사적 계승 관계와 그 득실을 파악함으로써 지향해야 될 왕조와 군주상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성리학을 통한 유교 본래의 문제의식의 강화와 중국 역사에 대한 이해는 자국 역사에 대한 파악을 필연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자국사도 모르면서 중국사에만 밝다는 자조적인 표현들이 그것을 말해준다. 공민왕 6년 이제현(1287~1367)이 史官과 三館員이 함께 國史의 편찬을 논의한 것은 자국 역사에 대한 관심의 발로였다.²⁷⁾ 공민왕 2년 이색이 정동행성 향시 대책문으로 추정되는 글²⁸⁾과 공민왕 9년 정몽주의 예부시 대책문²⁹⁾에서 중국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고려의 역사에서 文治를 행한 사실을 함께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할 수 있다.

27) 『高麗史』 권110, 列傳23 李齊賢(하-418-가, 419-나) “撰國史於其第史官及三館皆會焉……齊賢嘗病國史不備.”

28) 『策文』, 『東人策選』(이색) “箕子告武王以洪範者也, …… 洪惟太祖肇一三韓, 列聖相承, 威能繼述, 禮制大備, 衣冠文物, 煥然可觀, 雖中國, 未能或之先也, 於是尊尚儒術, 設科取士, 內立成均之學, 外設郡縣之學, 豐芑之雅, 菁莪之詩, 於倫於樂, 四百餘年, 其所以養育人才, 薰陶德性者, 無所不備矣.”

29) 『策文』(정몽주) “……惟我太祖統三之初, 立法制事, 並用文武, 五百年間, 爲治之盛, 可謂軼唐虞而追三代矣…….”

3. 한국 상고사 인식과 『삼국유사』 간행

1) 단군의 역사화와 한국 상고사 인식 확대

성리학을 국정 이념으로 삼은 조선왕조는 그 이전 왕조의 역사 서술을 통하여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성리학적 역사관에 입각해서 태조 연간에 『고려국사』로 시작된 전왕조사 편찬 작업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그리고 『동국통감』으로 일단락된다. 그런데 삼국시기 이전의 역사 서술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설화적이고 신비적인 내용을 경계하는 유교의 합리사관으로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전해주는 상고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는 명나라를 천자국으로 하는 사대 외교를 지속하면서 국가의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유교 문화를 조선에 전래한 기자와 나라를 연 단군을 함께 숭배하고자 했다. 태조 원년(1392)에 조박(1356~1408)이 단군을 건국의 시조로, 기자를 교화의 시조라고 언급한 것은³⁰⁾ 문명 교화의 상징인 기자와 국조로서의 단군을 동시에 추앙해야 하는 왕조 건국자의 고뇌를 표현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기본 이념은 성리학이었고 성리학적 정치이념으로 조선을 지배한다는 원칙은 확고하였다. 『조선경국전』에서 정도전은 조선이 신라·고구려·백제를 통합하고 주나라 무왕과 같은 시기에 유교문화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았다.³¹⁾ 단군보다 기자를 우선적으로 언급하는 기자 중심의 역사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 문명 수용의 상징인 기자와 조선 국가

30) 『太祖實錄』 권1, 원년 8월 경신(1-26-나) “禮曹典書趙瑛等上書曰, …… 朝鮮檀君, 東方始受命之主, 箕子, 始興教化之君, 令平壤府以時致祭”

31) 『三峯集』 권7, 朝鮮經國典 上 國號 “海東之國, 不一其號, 爲朝鮮者三, 曰檀君, 曰箕子, 曰衛滿, …… 惟箕子受周武之命, 封朝鮮侯, 今天子命曰惟朝鮮之稱美, 且其來遠矣.”

의 상징인 단군을 동시에 국가제사 대상으로 하였다.³²⁾

단군을 국조로 파악한 조선의 지배층은 성리학적 합리사관에 근거해서 역사상의 인물로 단군을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단군과 관련된 비합리적이고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고 단군의 역사성을 부각하여 인간 군주로 이해하려는 작업을 벌인다. 즉 신화적 존재, 민간 신앙의 신격으로서 단군을 제사하던 기존의 九月山 三聖祠를 인정하지 않고 평양에 새로 단군사를 건립하여 역사적 인물 國祖로서의 단군을 치제한다. 이와 함께 단군은 세 아들을 시켜 三郎城을 축조했으며, 왕자 부루를 중국에 파견하여 塗山會에 참석하게 했다는 등 군주로서의 단군의 치적을 제시하였다.³³⁾ 또한 권근(1352~1409)은 정도전이 유교 문화 중심의 정치체제 개편을 추구했던 것과 달리 고려의 법제와 전통 문화를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단군을 재해석했다. 태조 5년에 명나라 주원장의 요구에 응해 쓴 “옛날 동이를 처음 개벽한 군주”³⁴⁾라는 시에서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와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삼국유사』에서 단군의 천년이 넘는 재위 연수는 단군이라는 자연인의 수명이라기보다는 단군의 후손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한 연수를 합산한 것이라 했다. 이후 권근의 설은 조선시대를 통하여 공인된 단군 전승으로 채택되어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 수록하게 된다.³⁵⁾

32) 韓永愚, 『제2장 朝鮮前期의 國家觀·民族觀』, 『朝鮮前期社會思想研究』, 지식산업사, 1981.

33) 『世宗實錄地理志』 平安道 平壤府: 姜萬吉, 『李朝時代의 檀君 崇拜』, 『李弘植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69; 서영대, 『檀君 關係 文獻資料 研究』,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출판부, 1994, 72~73쪽.

조선 정부는 국조로서 단군을 파악하고 평양에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구월산의 삼성사를 없애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황해도 지방민은 삼성사 제사가 祈雨나 병 치료에 유효하다고 하여 삼성사의 유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은 황당한 말이지만 백성의 희망에 따라 삼성사도 평양 단군 사당과 같이 해마다 봄 가을로 국가에서 제사지내도록 하였다(강만길, 앞의 글, 1969, 259~271쪽).

34) 『陽村集』 권1, 應製詩 始古開闢東夷主(『太祖實錄』 권11, 6년 3월 신유(1-101나-102라)).

세종과 세조는 단군을 한국 역사의 시원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보다 구체화한다. 세종 11년(1429)에 평양에 단군과 동명왕을 함께 모시는 사당을 세웠고, 위패를 ‘朝鮮侯檀君之位’에서 ‘朝鮮檀君’으로, ‘朝鮮侯箕子之位’에서 ‘後朝鮮始祖箕子’로 개정하여,³⁵⁾ 역사적으로 단군과 기자를 병렬적으로 보았던 것에서 단군에서 기자로 이어졌다는 역사 계승의식을 천명하였다. 세조는 다시 이를 ‘朝鮮始祖檀君之位’로 고쳐 후조선을 아우르는 조선 역사의 시원으로서 단군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³⁷⁾

세조는 몇 차례 시도에도 좌절되었던 평양 순행과 단군 치제를 거행한다. 세조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집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순행을 통해 민심의 동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조는 6년(1460)에 평양에 순행하여 기자·동명왕과 함께 봉안된 단군 사당에 치제를 행한다.³⁸⁾ 세조의 단군 치제는 자신의 집권을 조선 역사의 시원인 단군에게 고함으로써 단군과 동명왕을 계승한 조선 국왕으로서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만한 문제는 『삼국유사』 왕력편에서는 주몽을 단군의 아들이라 하여 권1 기이2 고조선조의 설명과 다르다는 점이다. 『삼국유사』 고구려조에서 일연은 부루와 주몽을 異母兄弟라고 하였는데 넓은 의미에서 주몽을 단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견해를 일연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조선초기 사서에서는 단군-기자로 이어지는 계보를 강조하고 있어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應製詩註』에 부루를 단군의 아들이라고 하고 부루-금와로 이어지고 금와는 유화부인을 매개로 주몽으로 이어지는 서술을 하고 있어 주몽이

35) 서영대, 『단군인식의 변천』, 『고조선사연구 100년』, 학연문화사, 2010, 66~67쪽.

36) 『世宗實錄』 권49, 12년 8월 갑술(3-250-가).

37) 『世祖實錄』 권3, 2년 3월 정유(7-121).

38) 『世祖實錄』 권22, 6년 10월 기미(7-427).

단군과 간접적으로 연결된다.³⁹⁾ 권람(1416~65)이 세조 때 권신임을 고려하면⁴⁰⁾ 세조가 단군-기자-동명을 제사한 것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조의 정책과 사상을 뒷받침한 양성지는 세조 2년(1456년) 편인 24사를 올렸는데, 여기에서 전대의 군주와 재상에 대한 제사와 능묘에 대한 조사를 건의하였다. 매년 봄 가을에 전조선왕 단군, 후조선왕 기자, 신라시조, 태종왕, 문무왕, 고구려시조, 영양왕, 백제시조, 고려태조, 성종, 현종, 충렬왕 이상의 왕을 제사하도록 하고, 전조선, 후조선, 삼국 또는 고려가 도읍했던 개성, 강화, 경주, 평양, 공주, 부여, 김해, 익산 등지의 능묘를 살피자는 것이다.⁴¹⁾ 이는 전조선, 후조선, 삼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계승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고 단군이 우리나라의 시조이며 고조선이 한국 역사의 시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는 『팔도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을 정리하면서 『세종실록지리지』에 없는 단군의 고적에 대한 표시를 분명히 한다. 그가 1455년 편찬한 『동국여지승람』 평안도 강동현고적조에 2기의 大冢이 있다⁴²⁾고 하여 단군묘와 황제묘를 기록하고 있다. 강동에 있는 2기의 대총은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을 나타나며 단군의 역사화를 촉진시키는 배경이 되었다.⁴³⁾

39) 『應製詩註』 “高句麗 其地東西至大海, 南至漢江, 北至遼河, 始祖東明聖王, 姓高氏, 名朱蒙. 先是, 扶餘王解夫妻, 檀君之子也, 老無子, 祭山川求嗣, 所御馬, 至鯤淵, 見大石流淚. 王怪之, 使人轉石, 有小兒, 金色蛙形, ……漁師告金蛙曰, 近有盜梁中魚者, 未知何獸, 王使網之, 網裂更造鐵網, 始得一女, ……閉於幽室, 爲日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照, 因而有娠. 神雀四年癸亥夏四月, 生朱蒙.”

40) 權泰禧, 『應製詩註』 解題, 『韓國文化』 3, 1982, 165-170쪽.

41) 『世祖實錄』 권3, 2년 3월 정유(7-121).

42) 『東國輿地勝覽』 권55, 平安道 江東縣 古跡.

43) 김성환, 『세조의 평양 巡幸과 檀君墓』, 『韓國史學史學報』 19, 2009, 21~31쪽.

단군의 역사화는 한국상고사 인식의 확대로 이어진다. 세조는 4년 9월에 『자치통감』에 견줄만한 우리 역사서의 찬술을 명하여, 본국의 書記가 빠진 것이 있어 자세하지 않으므로 삼국사와 고려사를 합쳐 편년체 역사서의 찬술을 명하였고, 44) 성종 7년(1476) 12월에 『삼국사절요』가 완성되었다. 『삼국사절요』는 단군부터 삼국시기의 역사를 다루어 『고려사절요』와 합쳐져 『동국통감』으로 완성된다.

『삼국사절요』는 『삼국사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삼국유사』와 『수이전』, 『삼국사략』(『동국사략』) 등 『삼국사기』에서 빠진 자료를 보충하였고, 『삼국유사』 紀異편에 나오는 신화나 전설을 附註로 인용하고 있다. 45) 서거정은 『삼국사절요』 서문에서 터무니없는 일이나 방언·속어 가운데 매우 심한 것을 제외하고는 舊史에 근거해서 수록한다고 하였다. 46) 그리하여 『삼국사절요』 찬자는 자료의 성격, 사실 여부를 따져가며 『삼국유사』의 내용을 실었는데, 47) 단군 조선의 기록은 수록하지 않

44) 『世祖實錄』 권14, 4년 9월 병신(7-294); 권31, 9년 9월 신유(7-586).

번호	『삼국사절요』	『삼국유사』
1	권1. 新羅 始祖元年(甲子) 朴赫居世(신화)	권1. 新羅 始祖赫居世王
2	권1. 新羅 始祖五年(戊辰) 立閼英爲后稷(알영신화)	권1. 新羅 始祖赫居世王
3	권2. 新羅脫解王元年(丁巳) 昔脫解立(탈해신화)	권1. 新羅 第四脫解王
4	권2. 新羅阿達王四年(丁酉)(연오랑세오녀)	권1. 延烏郎細烏女
5	권5. 新羅訥祗王二年(戊午)(박제상)	권1 奈勿王 朴堤上
6	권8. 新羅眞平王五十一年(己丑)(김유신 출생 설화)	권1. 金庾信
7	권9. 新羅太宗王八年(辛酉) 金春秋薨(김춘추결혼)	권1. 太宗春秋公
8	권13. 新羅眞聖王六年(壬子) 甄萱叛據完山州 自稱百濟(견훤출생설화)	권2. 後百濟甄萱

45) 『삼국사절요』의 『삼국유사』 인용(鄭求福, 『三國史節要』의 편찬과 그 성격, 『韓國中世史學史(I)』, 집문당, 1999, 253쪽을 바탕으로 정리).

46) 『四佳亭集』 권4, 三國史節要序 “臣等本乏三長之才, 何能仰稱睿旨, 第取舊史及史略, 兼採遺事殊異傳作長編, 凡例一依資治通鑑, …… 或冒擬中國, 其名號, 或因循舊俗, 皆據事直書, 而美惡自見, 至如荒怪之事, 方言俚語, 去其太甚, 存其大略者, 不可輕改舊史, 而且以著風俗世道之淳厯爾.”

47) 鄭求福, 『東國史略』의 편찬과 그 성격, 『韓國中世史學史(I)』, 집문당, 1999, 177쪽.

았다. 서거정은 “우리 동방에 단군이 나라를 세운 사실은 너무 먼 시대라 추적할 수 없고 …… 漢나라가 사군과 이부를 두어 국세가 중간에 끊겼다. 三韓이 그 사이에서 일어났으나 君臣 上下의 분별이 없었으니 어찌 서적에 실어 전할만한 것이겠는가?”⁴⁸⁾라고 하였다. 서거정은 단군을 역사 기록으로 확정하기에는 실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삼국사절요』는 『삼국사기』를 주로 활용하고 『삼국유사』·『이규보집』·『수이전』·『팔도지리지』 등을 망라하면서 유교 합리사관에 의하여 한국 상고사를 복원하려 하였다.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유교 문명의 상징인 기사를 숭배하면서 국가의 시조인 단군의 역사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갔다. 특히 전통문화와 자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한 세종과 세조의 노력으로 단군과 한국상고사에 대한 인식은 확대되고 있었다.

2) 『삼국유사』 간행과 한국 통사 체계의 확립

조선초기 단군 의식과 상고사 이해의 확대는 『삼국유사』 간행으로 이어진다. 조선 왕조는 유교 문화를 지향하면서도 중국과 구분되는 국가 의식과 역사 의식을 견지하였고, 국가의 시원인 단군으로부터 조선 왕조까지를 계통적으로 연결하는 통사체계를 구상하게 된다.

조선은 건국초부터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역사 편찬에 우선 순위를 두고 『고려국사』라는 전왕조사에 대한 편찬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에서 단군·기자에 대한 언급과 조박이 국조로서의 단군과 문명 교화의 시조로서 기사를 제시함으로써 조선왕조 이전의 한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나갔다.

48) 『四佳亭集』 권4, 三國史節要序 “吾東方檀君立國, 鴻荒莫追, …… 漢置四郡二府, 國勢中絕矣. 三韓間起, 然無君臣上下之分, 安有載籍之可傳者乎?”

여말선초 유학자들은 『제왕운기』와 『삼국유사』를 통하여 단군과 삼국시기 이전의 역사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⁴⁹⁾ 이색은 기자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상고하기 어렵다고 하였고,⁵⁰⁾ 하륜 역시 단군 조선을 서책으로 상고할 수 없다⁵¹⁾고 하였다. 하지만 고려 후기 이래로 공감되고 있던 인식, 즉 단군 조선을 우리나라 역사의 시원으로 파악하고 이로 부터 역사의 계통을 잡아 조선까지의 역사를 서술할 필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에서 구하여 한국상고사 곧 삼국 이전의 역사를 서술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주목하였다. 그런데 『제왕운기』는 유학자인 이승휴의 저술로, 7언시의 형식으로 중국 역사와 전조선에서 발해까지를 서술하고 5언시의 형식으로 고려건국부터 충렬왕대까지의 고려사를 기술한 것이고,⁵²⁾ 고조선과 그 이후의 역사를 단군과 그 후손들이 이어간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기자 중심의 유교 문명사를 구상하는 조선초기 성리학자들에게 새로운 역사 서술의 필요성을 갖게 하였다.

반면에 『삼국유사』는 승려가 쓰고 불교적 입장이 반영되어,⁵³⁾ 우리

49) 여말선초 유학자들은 『제왕운기』와 『삼국유사』를 같이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료 정리는 다음의 연구에 자세하다(윤이흠 외, 『高麗時代 - 檀君 關係資料』,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출판부, 1994, 420~423쪽). 최근의 연구에서 이침이 『雙梅堂先生文集』(권22)에 제시한 단군 이해와 권근의 『동국사략』의 단군 이해는 『삼국유사』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라고 한다(하정룡, 『삼국유사사료비판』, 민족사, 2005, 268~273쪽).

50) 『牧隱集』 文藁 권8, 賀竹溪安氏三子登科詩序(우왕 4년 4월) “吾東方在虞夏時, 史不傳, 不可考, 周封殷太師箕子, 則其通中國也, 蓋可知已, 雖其封之, 又不臣之, 重其受禹範, 爲道之所在也.”

51) 『浩亭集』 권3, 雜著 策問3 “抑以吾東方言之, 檀君之朝鮮, 則無籍可考矣.”

50) 한영우, 『고려시대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상』, 창작과비평사, 1994.

53) 조경철, 『단군 신화의 불교적 세계관』, 『삼국유사의 기이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나라 고기류뿐만 아니라 『위서』·『구당서』 등 중국측 자료도 활용하고 있었다.⁵⁴⁾ 물론 여기에는 『삼국사기』에 대한 유사적 성격과 『해동고승전』에 대한 유사적 성격 그리고 선종사 문헌을 염두에 두고 찬술한 유사적 성격이 있다.⁵⁵⁾ 이는 한국 상고사를 서술하는데 역사 자료로서 검토해볼만한 사서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초기에 삼국 이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제왕운기』와 함께 『삼국유사』가 필요하였다. 단 두 사서는 각각의 특징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유교사관에 근거해서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했다. 따라서 조선초기에는 『제왕운기』⁵⁶⁾·『삼국사기』와 함께 『삼국유사』의 간행이 필요하였다. 『삼국유사』는 태조 3년(1394) 4월 무렵이나 그 이후에 『삼국사기』⁵⁷⁾와 함께 경주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⁸⁾ 이는 중종 7년(1512)에 경주에서 간행된 『삼국유사』

54) 이강래, 「『삼국유사』 기이편의 자료 수용 방식」, 『삼국유사의 기이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55) 남동신, 「『삼국유사』의 사서로서의 특징」,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2007.

56)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국왕에게 올린 것은 충렬왕 13년(1287)이고 진주에서 간행된 것은 충렬왕(21-23년)대이다. 재간본은 공민왕 9년(1360)에 삼간본은 태종 17년(1417)에 모두 경주에서 간행되었다. 현존 유통되는 『제왕운기』는 삼간본이다(李鍾文, 「『帝王韻紀』의 原典에 對한 몇가지 問題點」, 『고려시대역사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66~67쪽).

57) 『三國史記』跋 “三國史印本之在雞林者, 歲久而泯, 世以寫本行, 按廉使沈公孝生得一本, 與前府使陳公義貴圖所以刊行, 於癸酉七月, 下牒于府, 八月, 始鋳諸梓, 未幾, 二公見代, 余以其年冬十月至府, 承觀察使閔相公之命, 因繼其志, 乃助之施令, 工不斷手, 至甲戌夏四月告成, 嗚呼! 指揮能事, 以至於成, 惟三公是賴, 余何力之有焉? 但具事之終始, 書于卷末耳.” 府使嘉善大夫金居斗跋.

58) 『三國遺事』跋 “吾東方三國本史遺事兩本, 他無所刊, 而只在本府, 歲久刊缺, 一行可解僅四五字, 余惟士生斯世, 歷觀諸史, 其於天下治亂興亡與諸異跡, 尙欲博識, 況居是邦, 不知其國事可乎? 因欲改刊, 廣求完本, 閱數載不得焉, 其曾罕行于世, 人未易得見可知, 若今不改, 則將爲失傳, 東方往事, 後學竟莫聞知, 可嘆也已! ……皇明正德壬申季冬, 府尹推誠定難功臣嘉善大夫慶州鎮兵馬節制使全平君李繼福謹跋.”; 南權熙, 「泥山本 三國

임신본 발문에 “우리나라 삼국의 본사와 유사 두 책은 다른 곳에서 간행된 바 없고 오직 본부(경주)에만 있다. ……”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 고려시대에 『삼국유사』가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⁵⁹⁾, 그럴 경우 『삼국유사』 권5에만 나오는 ‘일연찬’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일연 사후에 고려후기 필사본으로 존재하다가 조선 초기에 간행된 것은 아닐까한다.⁶⁰⁾ 『삼국유사』가 일연이 죽은 지 얼마 안되는 고려후기에 간행되었다면, 정리되지 않은 편목 구성이나 권마다 ‘일연찬’을 표시하지 않고 권5에만 ‘일연찬’을 표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왕의 연구에서 『삼국유사』의 초간시기를 두고 고려후기설과 조선초기설이 있다. 조선초기설은 『삼국유사』 권5에 일연의 직함에 국존의 시호 보각이 빠진 것을 근거로 제자 무극이 스승의 찬술에 국존의 시호를 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⁶¹⁾ 이에 대한 고려후기 초간설은 제자 무극이 간행할 때 시호 없는 원고 그대로 간행되었다고 보았다.⁶²⁾

일연의 비문에 보각을 썼고 제자들이 일연을 현창하는 의미로 『삼국유사』를 간행했다면 비문과 마찬가지로 보각이란 시호를 일연의 직함에 덧붙였을 것이다. 『삼국유사』가 일연 생존 시에 쓰여져 보각이란 시호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일연의 문도가 아닌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보각이란 시호를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遺事の書誌的考察, 『書誌學研究』 4·5, 1990: 『慶州에서 간행된 書籍 研究』, 『신라 문화』 19, 2001.

59) 金相鉉, 『三國遺事の書誌的考察』, 『三國遺事の綜合的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南權熙, 『泥山本 三國遺事の書誌的考察』, 『書誌學研究』 4·5, 1990.

60) 천혜봉, 『『三國遺事』의 판각의 시기와 장소』, 『삼국유사연구』 창간호, 2005, 224쪽: 하정룡, 『삼국유사사료비판』, 민족사, 2005, 276쪽.

61) 천혜봉, 위의 글, 2005.

62) 김상현, 위의 글, 1987.

일연 비문에 언급도 되지 않은 『삼국유사』를 제자들이 간행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일연비에 『삼국유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 만큼 『삼국유사』가 중요하지 않은 저술이었거나 미처 『삼국유사』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중요하지 않은 저술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만큼 제자들이 간행했을 가능성은 낮다. 두 번째 비문 찬술 당시에 미처 몰랐다가 다시 존재를 알고 그 중요성이 남달라 간행했다고 하면 당연히 보각이란 시호를 덧붙였을 것이다.

1295년 일연비가 淸玢에 의해 건립되었고 청분이 無極이란 이름을 쓴 것은 그 이후이므로 무극이 前後所將舍利조와 關東楓岳鉢淵藪石記조를 부기했다고 하는 『삼국유사』는 1295년 이후 완성된 것이 된다. 따라서 제자들이 일연비 찬술 당시 『삼국유사』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다. 알고 신지 않았다면 중요성이 그만큼 덜한 것이고 중요성이 덜한 만큼 간행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 『삼국유사』의 존재를 일연비 건립 이후에 알았다면, 그래서 『삼국유사』가 비문에 적혀 있는 여러 책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서 『삼국유사』를 간행했다면 당연히 그 중요성에 맞추어 국존 위에 보각이란 시호를 덧붙였을 것이다. 비문 찬술 당시에 몰랐다가 발견하고 간행까지 하였다면 『삼국유사』의 편차나 저자 문제에 관하여서 명확하게 처리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에 의해 명확하게 처리된 『삼국유사』가 간행되었다면, 80여년도 못되어 현재 파른본과 같이 편차도 어긋나고 권5에만 일연찬이 붙는 불완전한 형태의 『삼국유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전후사정을 고려하면 『삼국유사』는 일연 비문 찬술을 전후하여 알려졌지만 비문에 실릴 만큼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았다. 제자 무극이 『삼국유사』에 몇 개 조를 부기하는 등 제자들에 의해 필사로 전승되다가 조선 초기에 최초로 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파른본과 임신본을 비교하면 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파른본 이전에 고려판본이 존재한다면 마찬가지로 파른본과 고려판

본 사이에도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판각한 고려판본에 보각이란 시호도 빠져있고 편차도 어긋나게 되어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까지 고려 판본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파른본을 조선초기에 간행된 초간본으로 상정해야 할 것이다.⁶³⁾

조선이 건국되고 조선 이전 역사에 대한 정리 작업과 한국사에 대한 계통적 이해 속에서 조선의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정책 방향은 그간의 역사 자료(사서)의 간행으로 이어졌다. 태조 원년 10월에 조준·정도전·정충·윤소중·박의중에게 『고려사』를 수찬케 하고,⁶⁴⁾ 태종 2년(1402)에는 하륜·권근·이첨으로 하여금 삼국사를 수찬케 하였다.⁶⁵⁾ 史書 편찬에는 기초 역사 자료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태조 2년 무렵에 개국 공신이고 정도전과 정치사상을 같이 한 심효생(1349~1398)⁶⁶⁾은 당시 안렴사로 재임중에 경주부사인 陳義貴와 함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조선 이전의 역사에 서적에 대한 간행 작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단군 인식의 강화와 『삼국유사』의 수요는 조선초기의 시대 배경에서 당연하였다. 조선 왕조는 그 이전 역사에 대한 체계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권근의 응제시·『삼국사략』은 고조선과 단군을 신화에서 역사로 이

63) 조경철 선생의 조언에 의거한 바가 크다.

64) 『太祖實錄』 권2, 원년 10월 신유(1-33-다) “命右侍中趙浚·門下侍郎贊成事鄭道傳·藝文館學士鄭德·林宜中·兵曹典書尹紹宗, 修撰前朝史.”

65) 『太宗實錄』 권3, 2년 6월 경신(1-36-다) “命領司平府事河崙·參贊議政府事權近·藝文館大提學李詹, 修三國史.”

66) 심효생은 전라도 순천 富有 심씨의 시조지만, 전주에 기반을 둔 토착세력 후손으로 우왕 9년 문과에 합격하였다. 정도전의 권고에 의하여 딸을 이성계의 康妃 소생 芳碩과 혼인을 맺도록 하여 국왕인 태조 이성계와 사돈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는 정도전과 더불어 조선의 체제 기반의 확립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이방원에 의하여 왕자의 난(태조 7년)으로 죽임을 당하였다(韓永愚, 『朝鮮 開國功臣의 出身에 대한 研究』, 『朝鮮前期社會經濟研究』, 을유문화사, 1983, 160~161쪽)

해하도록 했으며, 세조대 단군묘의 탐색을 통해서 이를 구체화했고, 단군의 전거가 되는 고기·본기 등의 자료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신화적 측면을 약화시키고 역사적 측면을 강조하였던 것이다.⁶⁷⁾

조선왕조는 국가 시조로부터 당대의 조선까지 일관되고 단일화된 통사로서의 한국사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는 『제왕운기』와 더불어 『삼국유사』를 기초로 『동국사략』과 『삼국사절요』 그리고 『동국통감』의 완성으로 마무리 되었다.

4. 맺음말

이번에 조선초기 판본으로 추정되는 파본본 『삼국유사』가 소개되었는데, 유교 국가 조선에서 불교사 입장에서 정리된 『삼국유사』를 조선 초기에 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표였다.

고려후기에는 몽골의 침입과 간섭을 통하여 민족적, 국가적 위기를 맞으면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통하여 국가의 시조로 단군을 인식하게 되고 국가의식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고려는 원나라 사이에 천자-제후라는 새로운 지배질서를 유지하고 왕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고려와 원 관계에 대한 새로운 역사인식이 필요했다. 그에 따라 형제맹약 이후 당시까지 양국 관계를 중심으로 한 약 1백여 년의 역사를 새롭게 서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千秋金鏡錄』

67) 다른 한편에서 세조대 간경도감이 만들어져 왕실에서 불교서 간행이 빈번했던 것은 불교역사서인 『삼국유사』의 수요를 촉진하게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간경도감은 세조 7년(1461)에 만들어져 성종 2년(1471) 혁파되었다. 간경도감에서는 漢文佛典, 諺解佛典 등을 간행하였는데, 간행목록 가운데 曹洞五位君臣圖가 있다(박정숙, 『世祖代 刊經都監의 설치와 佛典 刊行』, 『釜大史學』 20, 1996).

』·『世代編年節要』·『增修編年綱目』등을 통하여 고려 왕조에 대한 역사를 서술하고, 이제현은 『김공행군기』·『충헌왕세가』 등을 저술하여 자신의 직접 체험한 고려와 원 관계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고조선(왕검조선)을 상정하고 단군을 우리나라 역사의 시조로 설정하였다. 『삼국유사』에는 우리 역사가 고조선 위만조선에서부터 시작하여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그리고 고려로 이어지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원래 고려시기에 단군은 지역 수호신으로 존재해왔다. 즉 단군을 평양의 사당에 모셔진 지역 시조신, 또는 황해도 구월산 지역의 삼성사 등에 모셔진 민간 신앙적 자연신으로 이해하다가, 국가시조, 역사공동체의 시조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한국 역사의 시원과 그 이후의 역사를 계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였다.

단군을 역사의 시원으로 파악하는 것은 고려후기에 확산된다. 백문보와 이색은 단군을 국가의 시조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교의 합리사관에 충실하고 역사서술의 객관성을 중시한 이색은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데 주저하였다.

성리학을 국정 이념으로 삼은 조선왕조는 그 이전의 역사 서술을 통하여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조선의 지배층은 성리학적 합리사관에 근거해서 역사상의 인물로 단군을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었다. 단군신화의 비신화화 작업에 선봉에 선 것은 권근이다. 권근은 명나라 주원장에 응한 시에서 단군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고 하였고, 단군이 천여년 재위했다는 것은 단군이라는 자연인의 수명이라기 보다는 단군의 후손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한 연수를 합산한 것이라 했다. 이후 권근의 설은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 수록하게 된다.

단군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삼국사절요』의 편찬으로 이어진다. 『삼국사절요』는 『삼국사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삼국유사』와 『수이전』·

『삼국사략』(『동국사략』) 등 『삼국사기』에서 빠진 자료를 보충하였고, 『삼국유사』 紀異편에 나오는 신화나 전설을 附註로 인용하고 있다.

조선초기 단군 의식과 상고사 이해의 확대는 주자학 국가 조선왕조의 『삼국유사』 간행으로 이어진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에서 구하여 한국상고사 곧 삼국 이전의 역사를 중시하였다. 다만 『제왕운기』는 중국 역사와 한국 역사를 기술하되 시라는 문학 형식으로 서술하고 고조선과 그 이후의 역사를 단군과 그 후손들이 이어간 것으로 설명하였다. 『삼국유사』는 승려가 쓰고 불교적 입장이 반영되었으며, 우리나라 고기류뿐만 아니라 『위서』·『구당서』 등 중국측 자료도 활용되고 있다.

조선초기에 삼국 이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제왕운기』와 『삼국유사』가 필요하였다. 두 사서는 각각의 특징이 있으므로 보다는 성리학적인 합리성에 근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선초기에는 『제왕운기』와 함께 『삼국유사』의 간행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삼국유사』는 태조 3년(1394) 무렵에 『삼국사기』와 함께 경주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의 수요와 단군에 대한 이해 증가는 세조대에 와서 본격화된다.

성리학 국가 조선왕조는 단군 인식과 한국상고사 인식의 확대로 『제왕운기』와 함께 『삼국유사』가 필요하였고, 일관되고 단일화된 통사로서의 한국사를 필요로 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의 시조인 단군의 왕조인 고조선으로부터 조선왕조의 역사를 계통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통사인 『동국통감』을 완성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조선초기 『삼국유사』의 간행은 『동국통감』으로 귀결되는 한국 통사를 완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姜萬吉, 『李朝時代의 檀君 崇拜』, 『李弘植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69.
- 金相鉉, 『高麗後期の 歷史認識』, 『韓國史學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1985.
- _____, 『三國遺事의 書誌의 考察』,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_____, 『三國遺事의 書誌의 考察』, 『譯註 三國遺事』 V, 이회문화사, 2003.
- 金成煥,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2002.
- _____, 『고려시대 단군관의 역사적 정립』, 『白山學報』 75, 2006.
- _____, 『세조의 평양 巡幸과 檀君墓』, 『韓國史學史學報』 19, 2009.
- 南權熙, 『泥山本 三國遺事의 書誌的 考察』, 『書誌學研究』 4·5, 1990.
- _____, 『慶州에서 간행된 書籍 研究』, 『신라문화』 19, 2001.
- 남동신, 『『삼국유사』의 사서로서의 특징』,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2007.
- 박종기, 『원 간섭기 역사학의 새 경향-當代史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1, 2011.
- 서영대, 『檀君 關係 文獻資料 研究』,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출판부, 1994.
- _____, 『단군인식의 변천』, 『고조선사연구 100년』, 학연문화사, 2010.
- 이강래, 『『삼국유사』 기이편의 자료 수용 방식』, 『삼국유사의 기이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李基白, 『韓國古典研究 - 『三國遺事』와 『高麗史』 兵志』, 일조각, 2004.
- 李鍾文, 『『帝王韻紀』의 原典에 對한 몇가지 問題點』, 『고려시대역사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일연학연구원,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2007.
- 鄭求福, 『『東國史略』의 편찬과 그 성격』, 『韓國中世史學史(I)』, 집문당, 1999.
- _____, 『『三國史節要』의 편찬과 그 성격』, 『韓國中世史學史(I)』, 집문당, 1999.
- 조경철, 『단군 신화의 불교적 세계관』, 『삼국유사의 기이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천혜봉, 『『三國遺事』의 판각의 시기와 장소』, 『삼국유사연구』 창간호, 2005.
-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일조각, 1991.
- 채웅석, 『『帝王韻紀』로 본 이승휴의 국가의식과 유교관료정치론』, 『국학연구』 21, 2012.

- 崔柄憲, 『檀君 認識의 歷史的 變遷』,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출판부, 1994.
- 하정룡, 『삼국유사사료비판』, 민족사, 200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삼국유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 1987.
- 韓永愚, 『權近의 『東國史略』』, 『朝鮮前期史學史研究』, 서울대출판부, 1981.
- _____, 『제2장 朝鮮前期의 國家觀 · 民族觀』, 『朝鮮前期社會思想研究』, 지식산업사, 1983.
- _____, 『Ⅲ. 朝鮮 開國功臣의 出身에 대한 研究』, 『朝鮮前期社會經濟研究』, 을유문화사, 1983.

〈Abstract〉

The Perception of Dan'gun in the Early Days of Joseon and the Publication of *Samguk Yusa*

Do, Hyeon-Chul*

Recently, a new edition of *Samguk Yusa*, which is believed to have been printed and published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was presented to the academic community. This article examines why a Confucian state like Joseon bothered to publish *Samguk Yusa*, a history book which was written from a Buddhist perspective. In the latter half of the Goryeo period, Mongol forces invade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ollowing dynastic crises prompted the Goryeo people to a new interest in historical entities such as Dan'gun (perceived as the one and only founder of the people of the peninsula) which is reflected in the publication of history books like *Samguk Yusa* and *Je'wang Wun'gi*. The people's new appreciation of certain historical figures eventually led to a formation of a national pride. Goryeo, which was being forced to establish a new kind of relationship with the Mongol Yuan Empire, a relationship which was quite different from its former relationships with the Chinese dynasties, and the Goryeo dynasty and its people were in need of a new identity, and also a new historical perspective from which to view their relationship with the Mongol Empire.

www.kci.go.kr

* Professor of Korean History, Department of Histor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Samguk Yusa and Je'wang Wun'gi describe the history of Gojoseon and establish Dan'gun as the person who literally bega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Samguk Yusa* explains that Korean history began with Gojoseon, which was followed by "Sam Han" ('the Three Hans'), the Three Dynasties, and finally Goryeo. Previously, Dan'gun was believed in folklore to have been just a kind of regional deity from the Pyeong'yang area and the Mt. Guweon-san area of what is now Hwang'hae-do province, but he later came to be worshipped as the 'founder of the state,' and the originator of the historical community in which the Goryeo people lived.

Even in the latter half of the Goryeo period, when Dan'gun gained this new status as the founder of the Goryeo people, Confucian scholars, who believed in reasoning and did not embrace folklore-based stories with mythical properties, hesitated to accept Dan'gun as a historical figure and as a person who really existed. Based upon their understanding of Dan'gun, the people of the Confucian state of Joseon recorded the history from Dan'gun to Joseon, and in doing so tried to validate and justify the relatively young dynasty's foundation. Using Confucian-based studies and analysis, they tried to discover the true nature of Dan'gun as a real person, and as part of this effort, Joseon writers completed Dong'guk Sa'ryak and Sam'guk-sa Jeol'yo. *Samguk Yusa* was needed, as it was vital to secure basic primary data for historical compilation. It is presumed that *Samguk Yusa* was published in the Gyeongju area around 1394, in the third year of King Taejo's reign, along with Kim Bu-shik's *Samguk Sagi*. In other words, the people of Joseon imagined a Korean history that began with the time of Dan'gun and continued

through to the time of Joseon, and published *Samguk Yusa* as part of the effort to prove this. The establishment of Dang'un as the founder of the Korean people was only possible because of the people's already widened understanding of Dan'gun and the ancient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Samguk Yusa* (*Memoirs of the History of the Three Dynasties*), Dan'gun, Gojoseon, Gweon Geun, Gyeongju, Joseon

